

# 보 도 자 료



\*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.

◆ 홍보실

실장 이지영 / 담당 조하나

Tel : 032-770-8630, 8632

Fax : 032-770-8429

◆ 2019. 10. 8. 배포

◆ 총 2쪽 (본문 1쪽, 붙임 1쪽)

## 청계천에서 아라온을 만나다

### - 대한민국 유일 쇄빙연구선 「아라온」 운항 1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개최 -

- 극지연구소(소장 윤호일)는 오는 10월 9일(수)부터 13일(일)까지 5일간 청계천 광고갤러리에서 대한민국 유일 쇄빙연구선 「아라온」의 운항 10주년을 기념하여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.
- 이번 행사는 지난 2009년 건조된 이후 남·북극의 얼음 바다를 누비며 대한민국 극지연구의 성장을 이끌어온 쇄빙연구선 「아라온」 운항 10주년을 맞아 마련되었으며, 지난 10년간 아라온호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만나 볼 수 있다.
- 「아라온호, 세상의 끝에서 미래를 열다」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멀게만 느껴졌던 남극과 북극의 색다른 모습과 함께 이곳에서의 아라온호의 쇄빙 활동과 연구 및 구조 활동 등 다양한 활약상을 볼 수 있다. 얼음으로 둘러싸인 세상의 끝 남·북극과 국민들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전시와 더불어 ‘아라온 퀴즈 플렛 이벤트’와 ‘열살 생일을 맞은 아라온에게 응원 보내기’ 등 모든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. 이번 전시는 상기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, 관람료는 무료이다

※ 붙임 : 아라온호 사진전 전시 사진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극지연구소 홍보실 이지영 실장(☎ 032-770-8630)이나  
조하나 행정원(☎ 032-770-86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아라온과 아델리펭귄



러시아 어선 스파르타호를 구조하는 아라온



남극장보고과학기지 해빙 하역



북극을 향해 하는 아라온



북극해에서 연구 중인 연구자들과 아라온



각 국의 연구자들과 함께하는 아라온

\* 총 40점의 사진 전시 예정